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물투자를 저해한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명목으로 1987년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제도변경과 폐지 및 재도입의 변천을 지속해오다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이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출총제는 기업의 실물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력집중 억제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의 실물투자를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출총제 폐지 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출총제는 1987년 도입된 이후 폐지·재도입의 변천을 지속하다 2009년 폐지되었으나 최근 출총제 폐지 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움
 -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출총제 폐지를 전후한 경제력집중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변화가 출총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출총제 폐지 후 자산 및 매출 집중도는 제한·비제한집단 모두 '09년은 하락, '10년은 상승

<표 1>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비제한집단간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집중도 추이비교

(단위 : 수,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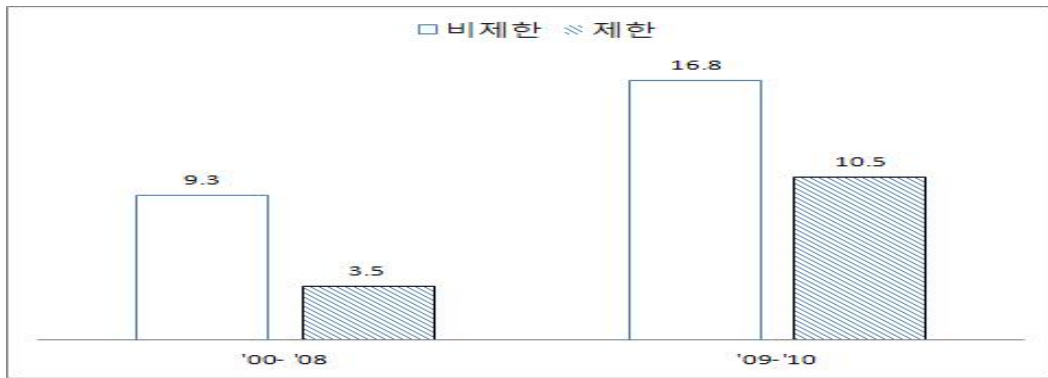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 집중도	출총제한집단	29.61	30.46	31.55	29.22	29.2	30.51
	출총제비제한집단	10.25	10.49	10.76	10.03	9.58	9.76
매출 집중도	출총제한집단	27.49	28.18	28.14	26.3	25.92	27.89
	출총제비제한집단	8.03	8.15	8.53	8.03	7.38	8.24

주: GS의 분리(2004년), STX의 30대기업집단 최초 포함(2005년) 등을 감안하여 '05년부터 분석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통계 DB를 이용하여 작성

□ 출총제는 기업의 실물투자를 저해함

-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소속 비금융기업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출총제가 기업의 실물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출총제를 재도입할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출총제 존속기간 중 제한집단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율은 비제한집단의 절반에도 못미친 반면, 제도폐지 후에는 차이가 큰 폭 축소되었으며 규제기간 중 두 집단간 증감율 차이는 공구·기구, 기계장치 등 실물투자 자산유형에서 두드러짐

<그림 1> 출총 제한집단 소속기업과 비제한 기업들의 투자관련 유형자산 증감율 비교 (비금융업 기준)



주: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DB상의 출총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 KIS -VALUE와의 연결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임
 2. 관측치는 출총제한집단 소속기업 622개, 출총비제한집단 소속기업 320개로 총 942개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ISVALUE

<표 2> 출총 제한집단과 출총 비제한집단간 유형별 투자관련 비유동 유형자산 증가율 비교

(단위: 증가율, %)

	'00 - '10		'00 - '08		'09 - '10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건물	9.8	5.3	9.2	5.0	12.8	6.9
구축물	6.0	5.2	3.7	3.3	16.6	14.0
기계장치	11.3	4.7	9.6	2.4	18.8	15.2
차량 운반구	2.0	7.2	1.1	1.2	5.7	34.2
공구와 기구	18.2	3.2	20.7	3.5	6.9	1.9
합 계	10.7	4.8	9.3	3.5	16.8	10.5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DB상의 출총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 KIS -VALUE와의 연결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으로 관측치는 출총제한집단 소속기업 622개, 출총 비제한집단 소속기업 320개로 총 942개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ISVALUE

- 경제력집중 억제효과는 없으면서 기업의 실물투자를 저해하는 출총제의 재도입 논의는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함